

오피니언

光日春秋

김민영



출판한 지 100일도 안된 이명박 정권의 지지율이 20%대로 폭락했다. 역대 정권 가운데 최악이라 한다. 혹자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몇 달 동안 느꼈던 피로감이 과거 정권 5년 동안의 그것과 맞먹는 것 같다고 토로한다. 더욱이 뛰어난 미국산 최고기 파동으로 민심 이반에 가속도가 붙은 형국이나 가히 정권의 위기가 부를만하다.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이, 게다가 여당의 총선 압승으로 과반이 훌쩍 넘는 국회의석을 갖고 있는 뭐 하나 아쉬울 것 없는 정권이 도대체 왜 이런 위기에 직면했을까?

우선 이명박 대통령의 안하무인적 인사행태가 국민들의 눈에 심하게 거슬렸다. 수석역, 수백억의 자산가들로 가득 채운 내각 및 청와대 진용과 땅투기, 위장잔입 등으로 문제 있다는 국민여론에 대해 '부자가 뭐가 문제냐며 응수하던 그 오만한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한다. 게다가 마치 점령군마냥 법으로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공직자들마저 모조리 숨어내고 있다. 이러한 무리한 인사행태는 이 대통령이 '자기 사람'을 삼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

준비 안된 정권의 예정된 '위기'

와 학생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는 어떤가? 언제는 이것이야말로 국운흥성의 길이며 불류혁명을 통해 경제를 살리는 대안이라 주장하던 그런 주장이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난 이후에는 수로로 만드는 것이니 운화가 아니라 운고 운고 있다. 미국에서도 문제가 너무 많아 개혁논쟁이 붙어있는 소위 '미국식' 의료보험체계를 들여오겠다고 하다가 국민반발이 거세지니, 의료보험 '당연지정제'는 폐지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꾼다. 한마디로 충분히 준비도 안 된 정책을

마구잡이 꺼내놓고는 국민들의 우려와 비판이 거세지면 '아니면 말고'식의 꼬리잡추기를 하거나 뒷꿈두니에서 은밀하게 추진하는 일이 다반사다. 이것만이 아니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열 받는 것은 도대체 무슨 원칙과 기준으로 외교를 하고 있는느냐는 점이다. 국민에게 아무런 언급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광우병 위험소를 마구잡이로 들어오는 협정문에 사인을 해버리고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항의를 시작하니 '미국 사람들 다 먹는 소고기'가 뭐가 문제라는 것이냐'며 오히려 국민들에게 핀잔을 준다. 일본과의 외교도 국민감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과거는 잊자는 등 일본 정부가 폐재를 부를 주장만 하고 돌아오지 않았는가? 또 하나 이명박 정부의 정책노선이 심하게 뒤떨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야겠다. 경제살리라고 뿔아준 대통령이 '부자경제' 살리는 데는 열과 성을 다하지만, 서민경제는 오히려 망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환율정책으로 인해 수출 대기업은 호황인데 원자재를 수입해서 부품을 만들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거의 초죽음 상황이다. 국민들은 급등하는 물가에 신음하고 있

다. 월급 빼고 모두 다 오르지 아저 살라는 것이냐는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 예산은 10%씩 일률적으로 깎았다 한다. 예산 삭감이 경제를 살리자는 명분이니 경제, 개발예산은 깎을 수는 없을 것이고 국민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뭉텅뭉텅 깎여나갈 것은 뻔한 일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권의 위기상황은 다른 누구의 탓도 아닌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준비 안된 아마추어정권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과거정권 탓, 과당 탓, 언론 탓 그 만하고, 그간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철저한 국정쇄신안을 내놓아야 한다. 우선 인사쇄신이 필요하다. 무능력하고 편향적인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고 국익과 국민을 가장 먼저 고려하는 사람, 깨끗하고 능력 있는 인사들을 발탁해야 한다. 또한 경제정책을 바꿔야 한다. 재벌 편향적, 부자 편향적, 개발 편향적, 수도권 편향적 경제정책을 중소기업 살리기, 국민생활 살리기, 지방경제 살리기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의 요구에 걸맞게 기울이는 민주적 국정방식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 이런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정권의 위기극복은 요원하다. <참여연대 사무처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이 대통령 '지방'과의 소통 외면할 건가

이명박 정부의 '지방정책'에 대한 비수도권의 연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광주·전남을 비롯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혁신도시 축소,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의 정책에 반발해 토론회와 집회를 잇따라 열고 있다. 비수도권이 토폴 뭉치는 양상이다. 전국 9개 지역 신문사 연합체인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수도권과지방발전국연대는 어제 서울에서 '위기의 국가균형발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자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 등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을 비난했다. 오늘은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등이 국회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혁신도시의 차질없는 건설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지난 16일에는 전국 70여개 분권단체 등이 대구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합의문을 채택했다. 비수도권의 반발이 갈수록 조

직화,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70여개나 되는 단체들이 공동대응에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새 정부의 지방정책에 대한 비수도권의 불만이 그만큼 크다는 증거다. 새 정부의 지방정책은 '5+2 광역경제권'이다. 경제권을 광역으로 묶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경쟁하라는 논리는 역설적 교수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내정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수도권 위주의 정책을 고집해선 '지방'의 반발은 피할 수 없다. '지방'의 위기감을 심각하다. 실용과 효율을 앞세워 균형발전과 분권을 후퇴시키는 것은 '지방 죽이기'일 뿐이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이 대통령이 '지방과의 소통'은 포기할 것인지 묻고 싶다.

U대회 광주 유치 '맞춤형' 전략 세워라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개최지 결정이 9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제대학스포연맹(FISU)은 오는 3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총회를 갖고 광주와 스페인 비고, 러시아 카잔을 상대로 개최지 결정 투표를 한다. 집행위원들의 표심이 U대회 광주 유치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이다. 광주시의 유치 노력은 전방위적이다. FISU 본부가 있는 브뤼셀에 22일 문을 여는 사무소에는 광주시와 한국무역협회 직원 등 5명이 파견돼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정보 수집활동 등을 하게 된다. 박광태 광주시장과 유치위 관계자들은 아프리카 및 유럽국가를 공략하기 위해 여저 출국했다. 광주의 경쟁상대는 카잔이 유력하다. 카잔은 푸틴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집행위원들을 상대로 유치전을 펴고 있다. 유치에 세번째 도전한 것도 동성심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어 부담이다. 광주시는 유치 가능성을 50%로 보고 있

지만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광주는 유럽국가들에 대한 공략이다. 1차 투표에서 스페인 비고와 탈락할 경우 U대회 유치 여부는 집행위원 27명 중 13명에 달하는 유럽의 표심을 얼마나 우리 쪽으로 끌어오느냐에 달려 있다. 자칫 1~2표 차의 살얼음판 승부로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이젠 맞춤형 전략을 세워야 한다. 아시아, 아프리카의 표를 확실히 다지고 부동표가 많은 유럽의 집행위원들을 집중 공략해야 한다. 예스토니아,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은 같은 유럽권인 카잔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국가별로 차별화된 다양한 유인책을 제시해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 국가의 지원과 관심은 필수적이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적극 지원을 약속한 만큼 광주 유치의 당위성을 알리고 인프라 확충과 재정 등 지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U대회 유치는 남은 9 일간의 노력에 달려 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Kisti의 과학향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정모

TV프로그램 CSI의 길 그리는 반장도 놀랄만한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1월29일 인도의 한 노인이 자신의 개인 금고가 있는 은행을 방문하였다. 노인은 3년 전에 개인금고에 보석과 현금 그리고 채권을 보관하여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였다. 그런데 놀랄게도 보석은 그대로 있는데 현금과 채권은 감쪽같이 사라졌다. 도대체 누가 훔쳐갔을까? 범인은 흰개미였다. 지폐와 채권 대신 흰개미들이 금고 속에 우글거리는 것을 보고 경찰은 흰개미들을 벌인 것으로 지목했다. 그렇다면 흰개미들은 지폐와 채권을 어떻게 한 것일까? 먹어 치운 것이다. 개미와 달리 흰개미는 지폐를 좋아한

아니다. 전남 무위사, 전북 선운사, 충남 마곡사, 충북 법주사, 경북 은혜사, 강원도 오죽헌 등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목조 문화재 69곳 가운데 33곳이 피해를 입었다. 건축물의 나무기둥 뿐만 아니라 고문서와 서적까지도 마구잡이로 먹어 치운다. 흰개미가 섬유질을 좋아하는 까닭은 소화기관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 때문이다. 소가 풀을 잘 소화시키는 이유는 위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섬유질의 주성분인 셀룰로오스를 분해하는 효소들을 내놓기 때문이듯, 흰개미도 마찬가지로 과학자들은 이 효소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면 목재를 분해하여 예탄을

희대의 금고 털이범! 범인은 흰개미

다. 지폐는 단순한 종이 가 아닌 편성유로 만든다. 물론 흰개미가 주식으로 삼는 것은 돈이 아니라 오래된 나무 기둥이다. 목조 건축물들은 흰개미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목조문화재는 오랫동안 보존하기가 쉽지 않지만 문화재에 대한 선조들의 예적이 남달랐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탈없이 전해 내려올 수 있었다. 건물 내 적당한 환기와 온도·습도 조절 등의 기능을 자연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목조문화재 모습 그대로 보존해온 것이다. 그런데 주변 환경의 개발과 변화, 문화재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흰개미가 서식하기에 알맞은 습도와 먹이를 제공한 셈이 되었다. 흰개미의 통도사 약사전에 있는 지름 50cm, 높이 3m의 기둥 여덟 개 가운데 다섯 개가 이미 흰개미의 습격을 받았다. 두드려보면 '뽕' 소리가 나고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기둥에 구멍이 나 있다. 피해를 입은 곳은 통도사뿐만이

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이오 예탄을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미래에너지이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세계적인 식량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주로 곡물에서 생산하기 때문이다. 흰개미 창자 속의 미생물을 우리가 키울 수 있다면 목재에서 많은 양의 바이오 예탄을 생산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친 환경파괴는 소탐대실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흰개미는 약 2억 년 전 지구에 나타났다. 그에 비해 미국의 시스템은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인간들은 흰개미를 찾아 죽이면서 이렇게 말한다. "도대체 이놈들은 뭘 하러 인간의 생활 터전까지 내려왔는가?" 하지만 말은 바르게 하자. 흰개미는 원래 죽은 나무를 먹어치우는 생태계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 이로 존재다. 인간이 그들의 영역을 침범한 이상, 흰개미와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과학칼럼니스트 인양대 교수>

기고



김재휴

보성은 한국 최대의 녹차 주산지이자 녹차의 수도이며, 동시에 국내 차발 여행의 1번지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성 하면 녹차, 녹차 하면 보성'을 떠올리는 것은 결코 과언이 아니다. 보성 녹차는 한국 지리지 표시 제 1호로 지난해 소비자가 뽑은 세계명품브랜드 대상, 일본 시즈오카 세계 녹차 품평회 은상을 수상하는 등 품질의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보성녹차가 한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씨와 함께 우주에 오르면서 일약 우주인의 음료가 됐다. 햇차의 계절인 5월을 맞아 보성에서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생명이 숨쉬는 보성녹차, 세계로! 우주로!'란 주제

내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특히 올해부터 군민의 날 행사와 다함께를 분리하여 행사장소를 모두 차발 일원으로 옮기고, 전문 차인들이 행사의 주체가 되어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한 것이 주요했다. 그 결과 행사기간 동안 91만 5천여명 가량의 관광객이 보성을 찾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녹차 재배농가의 소득 증대 등에도 크게 기여해 경제적 파급효과도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성군은 추정하고 있다. 이제 보성은 한국 차 문화와 차 산업의 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떠올랐으며, 앞으로는 '세계 녹차 수도'를 목표로 하

보성, 이제는 세계 녹차 수도!

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올해 다함께는 친체한 녹차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었으며, 세계적인 차 축제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다. 보성은 앞으로 지역별로 기후에 맞는 상품종을 대체해 나가고, 산비탈에 계단식으로 조성하던 차밭을 이젠 평지에 조성하여 노동력이 적게 드는 기계화 재배 등으로 생산비 절감을 통해 세계를 향해 경쟁력 있는 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2012년 여수 세계 박람회에서 보성녹차가 박람회 공식 음료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보성을 녹차를 체험할 수 있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생명이 숨 쉬는 보성녹차, 세계로! 우주로!'는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며, 세계 녹차 수도를 향해 보성은 지금도 진화·발전중이다. <보성군 부군수 행정학 박사>

사륜 오토바이 사고 빈발...운전면허·안전수칙 철저히

산악이나 해변가 등에서 레저스포츠 동호인들이 스릴을 즐기는 사륜 오토바이가 농촌에서는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4륜'이라는 안전감 때문에 2륜보다 선호하는 것 같다. 하지만 농민들 대부분은 기계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급커브길에서 주행하다 전복되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또 해변에서는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무작정 질주하고, 산악에서는 위험한 모험과 스릴을 즐기다 사고를 당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미니

바이크를 운행하다가 차량이 전복돼 머리를 다칠 경우 치명상을 입는다는 점이다. 안전수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륜차에서 파생된 3륜·4륜 오토바이는 '유사 이륜차'로 간주되고 이 밖에 전동스쿠터, 전동보트, 미니바이크 등은 '이륜차'에 포함된다. 따라서 유사 이륜차도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무면허 단속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정하·나주시 대기동

'얼굴 변환 시스템' 신기종 도입 실증자 찾기 효과 높여야

'얼굴 변환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다. 경찰에서는 이 시스템을 실증자를 찾는데 활용한다고 한다. 이 시스템은 실증 당시의 특성을 토대로 10년후, 20년후 변했을 얼굴을 가정해 그 나이에 맞게 얼굴을 형상화하는 것이다. 범인 얼굴을 추정해 그리는 통타주 기법을 실증자 가족 찾는데 활용하는 것이다. 실증자 가족에게는 이만한 단비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나라는 장비가

남아 별로 도움이 안된다고 한다. 즉 변환시킨 얼굴이 실제와 많이 달라 실증자를 찾는데 제약함을 못하고 있다는 예가다. 그에 비해 미국의 시스템은 우수하다고 들었다. 정부에서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얼굴 변환 시스템을 도입해 활용하면 한다. 국회는 이런 부분의 예산을 반영해 날로 늘어가는 실증자를 한 명이라도 더 찾는데 도움을 주기 바란다. ▲이조아·광주시 광산구 송치동

無等鼓

난장판은 사람들이 증구난방으로 떠들거나 뒤엎겨 뒤죽박죽이 된 상태라는 의미로 난장(亂場)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난장은 정해진 장날 외에 특별히 열리는 장을 일컫는 용어로 조선시대 허가받은 상권인 육주비전(육의전) 외의 무허가 가게를 총칭했다. 난장은 짧게는 10일, 길게는 2개월 넘게 열렸다. 난장에는 인근의 온갖 특산물이 모이므로 엄청난 돈과 물자가 유통됐다. 투전관 등 도박이 일부 허용돼 서민들의 시름을 달래는 '해방구' 역할도 했다. 이렇듯 물꼬를 트듯이 경제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관계로 '난장을 튼다'는 표현이 일반화 됐다. 때로는 마을의 흥액을 막기 위해 난장을 튼다. 마을에 흥년이나 물놀이, 돌림방 등이 자주 발생해 폐촌 위기에 처할 때 이를 쫓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난장이 열렸다. 난장에 수많은 사람이 모이면 그 기세로 마을의 흥액을 일으키는 나쁜 귀신을 물러나게 할 수 있다는 믿

을 때문이었다. 난장 가운데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이 전주와 강릉이었다. 전남지역에서는 광양이나 영산포가 지역 특산물이 거래되는 이름 있는 난장에 속했다. 지난 17·18일 이틀간 광양에서는 흥겨운 우리 가락 한마당이 펼쳐졌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광양시가 주관한 '2008 광양 국악난장'은 난장과 국악이라는 독특한 소재로 신명나는 한 판이 연출됐다. 특히 2만여명의 관중들이 몰려 국악 대중화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제 1회 대한민국 국악축제도 열려 전국 각지에서 모인 300여명의 젊은 대학생들이 전통 가락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쏟아냈다. 광양은 철강·항만도시로서의 명성에 못지 않게 다양한 전통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올해로 두번째를 맞는 광양 국악난장이 해를 거듭할수록 색채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여 지역을 상징하는 큰 잔치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김재필 사회2부장 ajkim@kwangju.co.kr

광양 국악난장



Table with Kwangju Ilbo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phone numbers and website.